



장하나(21·KT)가 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13 볼빅 KPGA 대상 시상식에서 상금왕을 수상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donga.com 트위터 @bluemarine

장하나 3관왕 “최고의 영광”

〈대상·상금왕·공동다승왕〉

■ KPGA 대상 시상식

김세영 공동다승왕…김효주 신인왕
점전 펼친 베스트드레서엔 양수진

장하나(21·KT)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대상 시상식에서 3관왕을 휩쓸었다.

장 하나는 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13 볼빅 KPGA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상금왕, 공동 다승왕을 차지했다.

3관왕 탄생은 2011년 김하늘(대상, 상금, 다승)에 이어 2년 만이다.

장 하나는 올 시즌 두산 매치플레이, 러시엔 캐시 클래식,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으로 상금 6억8954만원(벌어 상금랭킹 1위에 올랐고, 대상(387포인트) 부문에선 ‘루키’ 김효주(18·롯데)의 추격을 뿌리치고 막판 대역전에 성공했다. 다승 부문에선 김세영(20·미래에셋)과 함께 3승씩을 기록하며 공동 수상했다. 3관왕을 차지한 장 하나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세영은 공동 다승왕에 이어 인기상을 수상했다. 기자단과 온라인 팬 투표로 진행된 인기상 부문에서 2220포인트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김세영은 “멋진 상을 받게 돼 행복하다. 또 인기상까지 받아 더 기쁘다. 팬들이



2일 열린 2013 볼빅 KPGA 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드레서상을 수상한 양수진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민성 기자

있었기에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 내년에도 팬들을 위해 더 멋진 경기를 펼쳐보겠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효주는 신인상과 함께 최저타수상을 받아 2관왕에 올랐고, 가장 치열했던 베스트드레서 부문에선 양수진(22·정관장)이 수상했다.

2년 연속 미 LP GA 투어 상금왕에 이어 한국선수 처음으로 올해의 선수상을 올해의 선수를 수상한 박민비(25·KB금융그룹)는 USLPGA 대상을,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뛰고 있는 안선주(26)는 JLPGA 대상을 받았다. 이밖에 올해 첫 우승을 기록한 김다나, 최유림, 허윤경, 전인지, 김효주, 이민영, 김세영, 이미림은 위너스 클럽에 가입했다.

장하나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태극마크 효과! 박혜진 첫 MVP

(시즌 라운드)

1라운드 5경기 평균 12.8득점 5.2R
11월 여자농구선수권 참가후 실력↑
“인천 아시안게임서도 주축이 되겠다”



“국가대표를 다녀와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아시안 게임(2014년 인천) 때는 주축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진(우리은행)은 앞으로 한국여자농구를 이끌 선수다. 전도유망하다.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25회 아시아 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돼 한국이 준우승하는 데 힘을 보탰고, 귀국해서는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에서 맹활약을 펼친 덕에 생애 처음으로 라운드(1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국가대표 감독이자 우리은행 사령탑인 위성우 감독은 아시아선수권대회 당시 “국제대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미션(삼상생명)과 같은 배타권을 투입했지만, 감독으로서 시야가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표팀 식스맨이었던 박혜진 등이 국제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다. 우리은행 감독으로 돌아가서도 앞으로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험만큼 좋은 성장의 밑거름은 없다. 박혜진은 이번 시즌에 돌입하자마자 펼쳐 날아다니고 있다. 1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12.8점-5.2리바운드-4.8어시스트-0.8스틸을 기록하며 당당히 라운드 MVP로 뽑혔다. 우리은행이 1라운드 5전승으로 기분 좋은 출발을 하는 데 그녀의 역할이 컸다. 실제로 국가대표를 다녀온 뒤 실력이 한층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혜진이 이토록 맹활약할 수 있었던 데는 ‘책임감’이 작용했다. 비단 우리은행에서뿐이 아니다. 그녀는 김단비(신한은행), 이승아(우리은행) 등 젊은 선수들과 함께 한국여자농구의 우선과제인 대표팀 세대교체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잘



우리은행 박혜진이 ‘우리은행 2013~2014 여자프로농구’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박혜진이 라운드 MVP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포츠동아DB

깨닫고 있다. 태극마크가 부끄럼이 없는 선수로 성장하고 싶은 바람도 크다.

박혜진은 “대표팀에서 (이)미션 언니가 부상을 안고서도 뛰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다”며 “김단비, 이승아, 나와 같은 젊은 선수들이 앞으로 더 잘 해야 한다. 올 시즌 열심히 해서 2014인천 아시안게임에는 우리가 주축선수가 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트위터 @hong927



모태범(왼쪽)이 1일(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2013~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남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2차 레이스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1위 나가시마 게이치로(일본·가운데), 3위 아르티옴 쿠투네초프(러시아)와 시상대에서 서서 웃고 있다. 아스타나(카자흐스탄) | AP뉴시스

모태범, 월드컵3차 500m 銀

막판 가속 3위 제치고 준우승…올림픽 청신호

모태범(24·대한항공)이 1일(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2013~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남자 500m 디비전A(1부리그) 2차 레이스에서 34초87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위는 나가시마 게이치로(일본·34초69).

모태범은 첫 100m 스타트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9초70으로 다른 경쟁자들보다 0.1초나 뒤졌다. 그럼에도 200m에서 500m 사이에 가속을 붙이며 아르티옴 쿠투네초프(러시아·34초92)를 3위로 밀어냈다. 이날 초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1차 대회에서 1·2차 레이스 연속 은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다시 한번 은메달을 차지하며 올림픽 시즌을 앞두고 좋은 페이스를 유지했다. 홍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2014~2018년)간 국내 스포츠산업에 첨단 IT와 과학기술을 접목해 국민이 좀더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스포츠시장의 수요도 확대해 관련 산업 규모를 현재 37조원에서 53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부, 스페인 1부 리그 출신 크리스 모스 영입

동부는 2일 “포스트 강화를 위해 줄리안 센슬로(31·202cm)를 내보내고 새로운 외국인선수 크리스 모스(33·203cm)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모스는 2005년부터 5시즌 동안 스페인 1부리그에서 활약했으며 최근에는 우루과이리그에서 12경기에 출전해 평균 24.7점-10.3리바운드를 기록했다.

루지대표팀, 루지연맹 월드컵 3차 팀릴레이 8위

루지대표팀이 1일(한국시간) 독일 빈테르베르크에서 열린 2013~2014 국제루지연맹(FIL) 월드컵 3차 대회 팀릴레이에서 2분30초446으로 14개 팀 중 8위에 올랐다. 루지 팀릴레이는 2014소치동계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으며 남녀 1인승과 2인승이 이어달리는 종목이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가격에 놀라고 제품 실용성에 놀라고

전설의 독수리 **항공재킷**이 돌아왔다.

49,800원으로 항공점퍼 한 장이면 깔깔이 한장은 무조건 공짜!

부동의 판매위 재구매율 1위에는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사나이의 겨우살이 필수품 독수리 항공점퍼가 돌아왔다. 독수리 항공점퍼는 남성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핫 아이템이다. 깔깔이 대한 추억을 누구나 갖고있다. 독수리 항공점퍼는 겨울 필수재킷으로 멋스러운 외출복, 활동적인 작업복, 회사의 유니폼으로 자리매김 한지 오래다. 신모델 출시 기념으로 한 공점퍼 한장을 사면 깔깔이 한장을 증정한다.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된 신개념 신모델 제품이다. 항공점퍼 선두 업체 케이프로노스(주) 대표이사 고영록은 cronos1탄 daltapos2탄 kronos3탄을 베스트셀러로 만든 집념의 장본인이다.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CODMA 4탄을 야심차게 기획, 생산, 판매까지 하게 되었다. 2014년형 신모델로서 최신티 스마트폰도 쉽게 수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허청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은 제품이다.

단체복 주문시 컴퓨터로 깔깔하게 외판 제작. 독수리 항공점퍼는 고장률 0%를 위해 고급 지퍼 사용과 지퍼 물림 방지기능을 구현했다. 지퍼 덮는 원단에 배아핑을 넣고 안감에는 바람을 차단하는 바람막이 덮개를 부착하는 섬세함까지 놓치지 않았다. 가슴 어깨 패치 외판은 탈부착이 가능하다. 제품 구입시 본사 로고 패치를 드림으로 가슴과 팔에 붙일 수 있다. 단체복 구입시 컴퓨터 자수로 깔깔하게 제작하여 준다.

깔깔이 위에 재킷 입으면 극한 추위도 안녕. 깔깔이는 100% 폴리에스테르 원단 사용, 재킷이 몸에 붙지 않고 적당한 공기와 온도를 유지하는 완충기능을 한다. 항공점퍼는 항공용 원단, 헤비트레이를 사용했다. PU 삼중코팅으로 100% 완전 방수, 방풍을 자랑한다. 변형, 탈색이 안된다. 깔깔이 위에 항공점퍼를 입으면 겨울철 캄바람과 한파를 완벽하게 극복한다. 눈, 비, 바람까지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커버한다.

49,800 = 항공점퍼+깔깔이(내피)



• 색 상: 검정 (택배비 소비자부담)
• 사이즈: 95, 100, 105, 110

• 원단: 100% 폴리에스테르
• 특징: 고급 인조모크 탈 부착
• 깔깔이 1장 구입시 17,900원
• 깔깔이 2장 구입시 29,800원

• 색 상: 검정 (택배비 소비자부담)
• 사이즈: 95, 100, 105, 110

• 원단: 150메니아 항공용 헤비트레이
• 특징: 고급인조모크 100% 방수, 방풍
• 항공재킷 2장 구입시 79,800원

본사직판 : 080-405-0000